

大學은 本來의 제자리로

吳 洪 哲
(東國大 地理教育科)

研究는 대학의 原初機能

대학의 編制는 학부와 대학원으로 흔히 양분되고 있다. 學部에는 기초과정과 전공과정으로, 大學院에는 석사와 박사과정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 경향이다. 最末端의 편제인 기초과정에서 시작하여 最上端의 편제인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학이 갖고 있는 共通機能은 교육·연구·사회 기여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수 많은 학과의 專門領域에서 지식과 기법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키는 일은 教育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도 內容과 水準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중·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는 教育機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교육 기관은 교육 대상으로서의 학생, 가르치는 처지의 교육자가 教育 空間이라는 캠퍼스에서 만났을 때 비로소 교육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은 專攻分野別로 모집하고 있거니와 自由意志대로 행동하는 成年層이라는 점에서 全人教育에 초점을 맞추는 未成年段階의 중·고등학생과 구분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육 기능은 末端編制로 내려올수록 중시되는 반면, 上部編制로 갈수록 研究와 寄與活動이 증시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을 단순한 교육 기관으로 취급하거나 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들까지 단순한 教育者로 보고 있음은 대학의 低次元的 기능만을 고려한 처사일이 분명하다.

대학의 보다 차원 높은 기능은 研究活動에 있다. 편제상의 최말단에 해당되는 기초과정에는 人格 形成과 삶의 방법에 관련된 教養科目에 치중하므로 해서 교육 활동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高學年에 들어가면서 專攻 講座에 중점을 두고 卒業論文制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獨自的이며 創意性이 요구되는 연구 활동에 의해서만 과제 해결이 가능하다. 대학원의 碩·博士課程으로 갈수록 전공 분야는 다시 세분되면서 深化된 수준으로 理論을 발전시키고 體系化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더우기 편제를 따라 학생은 구분되어 있어도 교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된 理論이나 체계화의 試圖은 교육 활동보다 연구의 所産으로 가능함을 고려한다면 大學 機能을 교육 일변도로 몰고감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직

도 대학은 眞理의 殿堂으로 통용하고 있음은 대학 기능이 學問 研究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거니와 원초적 機能 恢復의 가능성을 낙관해도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은 敎育과 行政優位의 場으로 변모되고 있다

모든 학문은 客觀的 眞理와 법칙 추구에 궁극의 목표가 있고, 추구된 진리와 법칙은 검증과 理論 定立의 단계를 거쳐 敎育 內容으로 채택되는 법이니, 학문 연구와 敎育 內容은 相互補完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敎育 활동은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니 대학에서 學問 研究가 敎育 활동에 우선함은 당연한 것이다. 연구와 敎育의 관계가 等式으로 발전해서도 研究 機能이 逸失되는 상황인데 하물며 敎育 기능 優位의 不等式이란 가당치 않은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연구 기능의 疎外로 발전되었고 學問 輕視의 思潮를 낳았다. 따라서 이러한 思潮는 대학의 편제 속에 具體的으로 반영됨과 동시에 대학을 운영하는 관료의 의식을 혼돈시켰던 것이다. 사실 國家 發展의 원동력은 創意性을 살린 대학의 학문 활동과 研究 機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絲不亂함을 과시하는 힘 앞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간의 상황이다. 따라서 敎育 機能만이 肥大해진 기형적 大學 位相을 포출시켰던 것이다. 여기에다 原理보다 변태를 요구하는 社會病理가 이른바 3S의 장막(screen, sex, sports)으로 대학인의 연구의욕마저 두텁게 가리워 버렸으니 지성인의 暗照 世界는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대학의 운영을 관장하는 文敎部의 기능과 부서를 봐도 敎育이 우선이고 연구가 나중이니 겉과 속이 다른 형국이다. 명칭부터 敎育部로 고치고 불 일이다. 특히 대학을 관장하는 部署名

도 대학교육국으로 통용하고 있는데다, 부서의 책임자가 學界와 거리가 있는 行政 官僚 출신이니 대학 교수와 意思疎通이 될 리가 없다.

여기에서다 量과 外形으로 팽창된 大衆化된 오늘의 대학을 관장하기 위하여 당국은 下達과 指示의 구태의연함을 못벗고 있으니 大學 固有의 특성은 찾아볼 수 없고 行政部署의 말단 기관으로 전락된 느낌이다. 연구 업적보다는 보고서와 書類綴이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엔 연구와 敎育이라는 大學 本來의 機能 遂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상황은 행정 부서를 위해 대학이 존재하는 것처럼 혼돈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主客顛倒도 이만저만 된 것이 아니다. 더우기 거의 모든 대학 교수가 理致에 따라 自律 行動하는 것이 생활 방식이거늘 他律과 指示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는 중국 사람이 본다’는 俗談처럼 교수는 大學社會의 곰에 지나지 않는다. 學問 活動이라는 차원 높은 고매한 작업도 豫算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예산의 편성과 執行權을 갖고 있는 행정 직원의 實務 處分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私立의 경우 행정처장이 교수이므로 체면이 깎이지 않는 의사 소통이 가능하나 國立은 다르다. 自尊과 權威를 제1신조로 삼고 있는 교수들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길이 不干涉主義임을 알면서부터 和洽과 調和의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교수-직원간의 同伴關係가 물과 기름처럼 별개의 小宇宙를 만들게 되었다. 그 결과 고뇌의 과정으로 창출되는 原稿料가 길거리에서 機械的 模倣으로 쓰여지는 代書料보다 낫게 책정되거나, 博士論文의 심사료가 雜役夫의 日當 賃金에도 못미치게 책정되는 웃지 못할 일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중국에는 研究 與件과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

정을 모르는 행정 직원에 의해 대학 운영이 좌우되는 한, 교수들의 연구 의욕과 研究 成果는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서 행정 직원에 대한 任命權을 중장이 갖지 못하고 있으니 형식상의 소속 기관장보다 임명권자인 문교장관의 동경에 관심이 더 가는 건 당연하다. 여기에 遠隔調整者의 실재가 변도로 존재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大學 自律을 거론할은 소위 관상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內實보다 外形 變化에 치중하는 대학

대학은 大衆化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름도 모르는 대학들이 雨後竹筍처럼 솟아났으니 靚立이 곧 대학의 實像으로 비쳐지고 있다. 여기에 수 많은 대학은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보아야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他大學보다 優越性이 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大學 固有의 전통과 個性으로 표현되지만 劃一化되어 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대학 나름의 전통과 개성은 明瞭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은 內實보다 外形 變化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을 소개하는 각종 책자도 연구 업적과 대학의 존재 의미보다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한 환경단을 부각시키고 있으니 經營 哲學에서 대학의 尊嚴性과 本質을 일탈하고 있음이다.

外形 變化를 위해서는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으로, 단과대학보다는 종합대학으로의 탈바꿈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昇格이라는 환상 속으로 誤解되고 있다. 또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對 外宣傳에 있다고 보아 거의 모든 대학은 弘報室이라는 전담 부서까지 두어 所屬 教授의 동경과 掲載論文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社會寄與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입시 때에 방송되는 志願狀況의 발표 순서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움은 확실히 過敏反應이다.

관련 선전 수단으로 대학의 스포츠가 동원되

고 있다. 스포츠는 관람자로 하여금 野性과 熱狂 속으로 몰입하게 함으로써 所屬의 同質性에 바탕을 둔 一體感과 愛核心을 불러 일으키는 이 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知·德·體가 均衡과 調和를 이루었을 때 현대적 知性人像이 경립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知·德을 소홀히 한 채 外形의 體力에만 편중함은 빈 수레와 같이 內實 없는 요란한 人間像을 最善하는 결과가 된다. 더우기 우수 선수의 스카웃 명목이라지만 學生身分으로서 교수의 年俸을 무색하게 하는 獎勵金을 받는다면 이것은 모순이며 교수의 士氣를 또한번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研究 教授는 우대되어야

대학 교수는 연구하는 일에 原初機能이 있으므로 어떤 역할보다도 이 기능을 優位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法定 時間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고 補職을 맡는 경우 行政 業務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학의 실정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며 우위에 두어야 할 研究 活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持續的 努力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긴 방학 동안에도 공무원과 회사원의 休暇 概念과는 달리 自己 研究를 위해 매일같이 연구실에서 생활해야 한다. 研究 課題를 착상하고 관련 문헌과 자료를 蒐集 分析하며 論理 展開를 통해 論文을 作成하는 일은 고뇌와 각고의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연령에 비하여 교수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가 센 老老現象은 고뇌와 각고의 생활을 反證함이라. 그러나 교수의 입장에서서는 학문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에 不滿이 있을 수 없거니와, 研究 成果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니 빈 손으로 돌아가는 人生 살이에서 이승에 왔다간 보람치고 이상의 것이 또 있으랴!

그러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大學社會 안에서 研究에만 專念하는 소위 研究派 教授를 補職 教授보다 評價切下하고 있고, 물러 다니는 世俗化된 교수 집단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그릇된 풍토가 존속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대학이 研究 優位の 제자리에서 逸脫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補職을 맡으면 시간에 쫓기고 雜務에 시달려 연구는 엄두도 못내는 데다, 최근에는 학생들로부터 嫉視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직을 出世라고 착각하는 교수들이 늘고 있음은 교수와 학생 간의 視察 差異 때문이리라.

학생들의 시각에서 補職 教授는 어용으로 바라보지만 아직도 막강한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수당이라는 所得源 말고도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은 교수의 인사와 연구비 지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의 肥大化와 獨占은 유신 체제의 잔재이다. 知性人의 집합체로서 가장 民主化되고 自律化되어야 할 대학 사회가 時代狀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과 權威主義를 내세워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安住만을 추구해 온 해바라기의 타성이 몸에 배어 있는 탓이다. 매미가 스스로 껍질을 벗어나듯이 대학도 하루빨리 고뇌와 아픔을 딛고 능동적인 脫殼 作業을 해야 한다. 이 길만이 研究 風土를 존중하는 大學 本來의 자리로 復歸하는 처방이 되고, 학생에게 이끌려 다니는 오늘의 大學 位相으로부터 尊敬과 信賴받는 교수들에 의하여 대학 운영이 主導되는 分水嶺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